

아름다움을 위해 할일을 다한



多島海紀行

易齋

水碧沙明에 검은 숲

黑山島와 옥섬을 돌棧橋로 連結시킬 계획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옥섬의 정자에서 老人들이 바둑도 놓고 一盞할 수 있겠다. 面長님의 이야기로는 옥섬의 정자는 老人亭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曳里 마을에서 서쪽산을 바라보면 돌을 쌓아서 만든 城이 보인다. 이것을 모양에 따라 半月城으로 부르고 있다. 海賊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며, 高麗時代 入島당시 쌓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 피바위라는 岩壁이 있는데 이것은 敵을 막아낸 戰鬪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돌의 크기로 보아 사람의 힘으로 쌓기 어려운 웅장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堂木 팽나무를 보러갔다. 나무 줄기가 地上 50cm되는 곳에서 3갈래로 갈라지고 있는데 각 줄기의 胸高直徑을 60, 70, 80cm로 推

定해 보았다. 樹齡 150年生, 수고 16m로 기재된 팽말이 있다. 줄기에는 송악과 개머루가 감겨 올라가고 있다. 나무 아래에는 男子塔, 女子塔이 있는데 해마다 祭祀를 드린다고 한다. 나무 둘레에 담장이 있는 것을 보면 소중하게 보호되고 있는 信仰의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나무의 주변 平地에서 古瓦가 많이 發掘되고 있다. 지금은 집이 없지만 예전은 이곳이 部落의 中心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歲月따라 변하는 것이 많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 山城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曳里로 가기로 한다. 날씨가 찌는듯이 덥다.

짧은 거리였지만 배를 타고 曳里쪽으로갔다. 鎭里의 자갈 海岸은 그것으로 훌륭한 景觀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鎭里의 옛 산길을 걸어서 이곳에 있는 신기한 나무를 보기로 했다. 이 길은 아랫쪽의 새 길이 나기전까지 쓰여진 길이다. 우리가 먼저 간 곳은 鎭里 一리에

있는 성황당이었다. 堂의 주변에는 赤松과 海松의 巨木들이 서 있었다. 얼마 안되는 좁은 面積에 赤松과 海松의 큰 나무가 모여 있는 것은 대단히 奇異한 현상이다.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이와같은 현상은 잘 볼 수 없다. 옛 사람들의 陰陽을 생각한 計劃植栽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숲이다. 赤松과 海松의 分布前線이 서로 接觸되고 있는 곳으로 생각된다.

후박나무, 멀구슬나무, 초령목

그뒤 이곳 성황당 가까운 곳에 서있는 招靈木을 보러갔다. 수고 20m, 胸高直徑 86cm라는 팽말이 서 있다. 이 나무는 日本에 많은 나무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樹齡이 대단히 오래 되었겠는데 이 나무가 이곳에 자라게된 연유는 짐작할 수 없다.

日本말의 이름은 「오가다마노기」이다. 常綠闊葉이고 앞에 鋸齒가 없고 잎자루가 길고 잎이 두



흑산도 예리항구에 있는 팽나무
('82. 8)

텃고 表面은 진한 녹색의 光澤을 가지고 있다. 목련科에 소속되는데 日本에서는 寺院부근에 주로 심고 있다. 種子發芽가 어려운 편이다.

面長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 파종하여도 苗木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種子發芽가 원래 어렵기도 하지만 孤立木일 때에는 授精의 상대가 없어 胚가 不稔으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自家授精이 어렵다면 이 나무에서 얻은 열매는 大概가 虛實이다. 그래서 그 子孫이 얻어지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 나무의 學名은 *Michelia compressa*이다. 잎이 후박나무에 많이 닮아있다.

우리는 남해여관으로 갔다. 일곱사람이 큰 방 하나를 얻어 들었다. 큰 모기가 많아서 방안에 모기향 다섯개를 피웠다. 모두들 피로를 느끼고 있다. 저녁을 먹고 선 모두 아무 말없이 잠자리에 든다.

7월 31일(土)

아침 7시, 배를 타기 위해서 당황하는 가운데 우리는 船着場으로 나갔다. 3그루의 팽나무 아래를 지나간다. 150년생, 수고 14m, 胸高直徑 80cm, 줄기가 알맞게 굽어있고 樹冠은 검푸르다.

배에 올랐다. 飛禽島로 간다. 旅客船이다. 甲板 위에서 강렬한 햇볕을 받다가 나는 客室로 들어가 누었다. 누군가 내려와서 곧 都草島 港口에 도착한다고 하기에 甲板으로 올라갔다. 10시에 도초도 항구에 도착했다.

이때까지 함께 踏查旅行을 하던 呂運事務局長님과 崔鎭變君 그리고 金靑安君은 바로 木浦로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손을 흔들면서 점점 작아져가는 배를 아쉬워했다.

도초도에서 손을 흔든
사람들

작은 배를 타고 都草港에서 飛禽島의 水大里 船着場으로 갔다. 水大里에서 우리는 택시를 탔다. 택시라기 보다는 小型버스 같다. 德山里에 있는 飛禽面事務所로 간다.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海拔이 낮아서 그런지 路面에 흙탕물이 많다. 가는 길 양쪽에 塩田이 많다. 新安郡으로서는 가장 塩田이 많은 섬이라고 한다.

우리는 面事務所에 가서 現況 이야기를 듣고 점심을 먹으로 갔다. 狗湯집으로 갔다. 壬戌生은 壬戌年에 狗湯을 먹으면 좋다.

햇볕이 쨍쨍 쬐이고 있다. 우리

는 飛禽島, 牛耳島, 薪島, 大也島, 都草島 등을 踏查하기 위해서 水大里(관청동으로도 말한다.)로 다시 나갔다. 택시를 탔다. 水大里에서 멸구슬나무의 사진을 찍었다.

新安郡庁에서 보내온 성능 좋은 行政船에 올랐다. 新安郡庁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우리는 비금도의 西海岸을 따라 北上하고 牛洗島를 감돌아 비금도의 北端 海岸에 펼쳐있는 明沙十里의 海水浴場을 보고 다시 南下한다. 牛耳群島로 가서 薪島의 南端을 돌아 大也島를 一周하는 코오스를 밟게 된다. 飛禽面 副面長님이 同船해 주신다. 가다가 왼쪽에 대섬이 보인다. 좋은 海水浴場이 있다. 대섬 부근에서는 良質의 돌미역이 나고 좋은 食水가 있어서 一家戶가 살고있다. 뱀장어 낚시터가 있다고 한다.

북쪽으로 나아간다. 대섬이 나타난다. 대섬의 둘레는 깎아올린 듯한 절벽이다. 절벽에는 구멍이 많이 뚫려있다. 그 구멍에 매가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대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금은 이 매들이 어디론가 가서 없어졌다고 한다. 사람들의 交通이 빈번한 바다가 싫어서 더 原始의 섬으로 갔는가.

과거 비금도와 도초도에는 노루들이 많았다고 한다.

원시는 원시를 그리워해

이러한 섬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半島의 陸地部와 連結이 되어 있었다는 推論을 낳게 한다. 無人

島에는 들쥐도 있다는데 매는 그것을 먹이로 하고 岩壁에 집을 얻어 身邊의 安全을 확실하게 하면서 西海의 荒波를 즐겼을 것이다.

飛禽島의 主峯인 先王山(255m)이 높게 솟고 그 頂上은 바위로 奇峰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범연한 것은 없다. 바닷가에는 산비둘기가 많이 살고 있다. 하늘섬은 石壁, 洞窟, 奇岩으로 表現되는 섬인데 이섬에 비둘기가 많이 살고 있다.

飛禽島의 先王山의 東北쪽에 西山寺가 있는데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다. 이곳에서 돌도끼가 発見되고 있다는데 비금도에 사람이 산 역사는 오래 것으로 생각된다. 日帝時代에는 이곳에 高射砲진지가 구축되었다고 한다.

이 부근은 좋은 漁場으로서 농어, 민어, 가재미, 조기의 일종, 이러한 것이 많이 잡힌다고 한다.

新安郡庁의 張先生님이 「모래

치」에 대한 설명을 한다. 바닷가의 砂場을 깊게 파면 淡水가 나오고 이물은 農用灌溉水로 이용된다. 이물을 모래치라고 부른다.

금년 한밭이 심하였을 때 이곳 섬 사람들은 砂場의 淡水를 발굴해서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금년은 모래치가 소중했다.

비금도의 西北端 元坪에 왔다. 전에는 元坪波市가 유명했다고 한다. 防波堤가 보인다山에는 海松이 자라고 있다. 硅砂의 採掘船이 보인다. 유리 원료로서 가장 좋다고 한다. 여기에도 開鑿과 自然의 대립같은 것이 엿보인다.

긴 明沙十里의 海辺이 보인다. 그 길이가 4km에 이른다. 文字 그대로 十里砂場이다. 여기에 해당화가 많은데 서울 사람들이 藥用으로 많이 캐갔다고 한다. 여름이 되면 많은 人波가 모인다고 한다.

해당화 붉게피는 명사십리

牛洗島가 보인다. 硅砂를 파고 있다. 멀리 黃金漁場으로 말하는 荳子島가 보인다. 오른쪽에 멀리 七堯島가 보인다. 七堯島에서는 검은조기(검은색깔의 조기)가 잘 잡히는 낚시터가 있다고 한다. 船上에는 수박이 갈라지고 度數 높은 술잔이 오고 간다. 할병의 술이 곧 비어지는 것을 보면 알맞은 때 두경이 열린 것이다.

왼쪽에 石黃島가 보인다. 섬의 색깔이 紅焰色이다. 採石場이 보인다. 黑石 등 좋은 돌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採掘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이것이 禁止되고 있다. 牛耳島가 보인다. 牛耳島의 硅砂는 日本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다. 牛耳島는 蘭草의 섬, 風蘭의 섬이다. 소들이 잘 사육되는 섬이다. 그래서 牛耳島인가. 都草島는 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얻어졌다고 한다.

牛耳島에는 좋은 海水浴場이 있다. 모래는 희고 물은 푸르다.

이섬의 主峯은 海拔 385m이다. 이 산에는 藥草가 많이난다. 牛耳島의 名物은 꽃게, 만병통치의 蛇酒, 藥草를 먹고 자란 黑염소 그리고 藥草라고 한다. 黑염소는 특히 女子에게 좋다고 한다.

牛耳島에는 이상하게도 모래산(砂山)이 있다. 산 稜線부터 시작되어 海辺에 이르는 砂場이 있다. 모래스키장이다. 이러한 砂場이 생긴 것은 신기한 일이다.

다른 섬같으면 岩壁에 풀이 나지 않지만 牛耳島만은 岩壁에 풀



멀리 선 바위가 보이는 巨文島('82. 9)

이 난다고 한다. 산에 放飼되는 흰 염소가 보인다. 牛耳島의 南端은 울창한 숲이지만 바닷바람 때문에 나무의 키가 낮다. 牛耳島에는 崔致遠선생께서 바둑을 둔 자리가 남아있다고 한다. 中國으로 가던 길에 잠시 이곳에 들려 쉬어간 모양이다. 산꼭대기에는 물이 나는데 가무는 때에도 물길 이 끊기지 않는다고 한다.

風浪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는 船路를 바꾸고 있다. 波高가 높다. 나는 가까운 섬으로 피난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그냥 가기로 했다. 우리의 배가 썸통에 들어 간뻔 했다는 것이다. 파도가 커도 바다가 깊으면 안전할 수 있지만 얇은 바다의 風浪은 위험한 것이라 한다. 높은 파도를 타고 있어도 배의 機關만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을 헤쳐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물이 소용돌이 치는 썸통에 배가 들어가면 엔진이 꺼지고 事故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위험한 곳을 간신히 벗어났다. 船長이 말하기를 오랜 배의 운항 경험이 있지만 이와같은 큰 波濤는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누군가 높은 파도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조금 지나서 우리는 이 風浪地區를 벗어날 수 있었다.

牛耳群島의 남쪽에 있는 竹島가 보인다. 牛耳竹島라고도 말한다. 여기에는 12家口가 살고 있다. 副面長님의 말로는 비가 올 때 이섬을 바라보면 韓國式瓦家모양으로 된다고 한다. 바다의 造化가 무궁무진해서 自然의 偉力은 너무 크다. 12家口의 竹島이

지만 이 섬에는 국민학교가 있고 1 사람의 경찰관도 나와 있다고 한다. 6,000坪정도의 農土가 있고 마늘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住民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牛洗島에서 竹島까지

미술박물관, 다도해

왼쪽 멀리 兄弟바위가 보인다. 奇岩의 多島海이고 多島海는 奇岩들의 모임이다. 옆에 鼻島가 보인다. 아름답다. 험한 산이다. 海松이 자라고 있다. 나는 牛耳竹島와 鼻島의 遠景을 스케치 해 보았다. 情緒의인 섬, 인상적인 섬이었기 때문이다.

왼쪽에 높은 大也島가 보인다. 이 섬에는 노루가 많았다고 하며 몇년전만 하더라도 노루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가 컸었다고 한다.

전에는 島民들이 매일같이 노루고기를 먹었지만 지금은 禁獵이 되고 있다 한다. 飛禽島와 都草島에도 전에는 노루가 많았다고 한다. 그만큼 노루에게는 그

때가 平和스러웠고 먹을 것이 많았던 것이다.

드디어 薪島의 차례이다. 海水浴場이 있고 캠핑들을 하고 있다.

산에는 흰 염소가 보이고 있다. 파도가 거세다. 薪島의 西端의 절벽을 사진에 담아보았다. 薪島에는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薪島인가.

多島海의 讚詩 하나를 들어본다.

散落島群 伏海中

西天万里 碧無西.

尹善道の 다음 시조가 이때 격에 맞아든다.

南風이 전돛 부어 물결 고이 난다.

東湖를 돌아보며 西湖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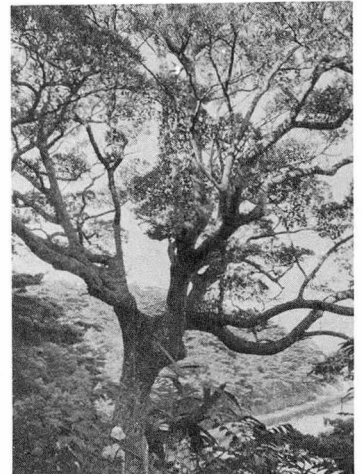
가자스라

알되히 지나가고 뒷되히

날아온다.

우리는 薪島부터 北上을 시작했다. 大也島가 다시 나타난다.

이 섬의 海岸의 絶壁은 奇觀이다. 여러개의 斷層을 보이는 柱



흑산도 진리에 있는 초령목 (招靈木) ('82. 7. 29)

狀石理가 그림같이 아름답다.

大也島를 지나 北端에 있는 都草島로 가고 있다. 그 중간에 東西로 긴 명에섬이 있다. 無人島이다. 이 섬에는 높은 鐵塔이 있고 都草島에서 大也島로 送電이 되고 있다. 이곳 住民들의 生活은 電化로 말미암아 一變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얼마든지 짐작이 간다.

철탑을 세울 때의 逸話가 있다. 처음의 철탑 工事에서 그것은 倒壞되었다. 基礎를 파고 콘크리트 工事를 할 때 그 구덩이에 큰 지네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지네를 함께 生理藏해서 基礎 工事를 했기 때문에 그 鐵塔이 넘어졌다는 것이다. 다음번 工事에서는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올렸더니 일들이 順調롭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명에섬에는 지네도 많지만 큰 구렁이가 또한 많다고 한다. 땅꾼들도 명에섬의 구렁이는 잡지 못한다고 한다. 구렁이는 이섬에서 무엇을 먹고 사는가, 산 쥐를 먹고 사는가.

우리는 都草島의 柿木海水浴場(또는 五柳里海水浴場)을 보았다. 年間 万名以上の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2.4km 길이의 훌륭한 海水浴場이다. 水碧沙明 그거다. 周辺은 또한 좋은 漁場이다. 多島海는 우리나라의 寶庫이다.

都草島에는 砂質土壤의 山地가 많은데 砂防事業을 하면 山을 못 쓰게 만든다고 한다. 都草島의 山은 그대로 두면 植生이 自然 回復된다고 한다. 自然의 힘이 훨



羅老島의 海松林('82. 9)

씬 效果的이라고 한다. 陸地에서 的 技術을 그대로 島嶼로 옮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教訓이다.

壬戌季夏 遊於碧海

오후 6 시반, 都草島의 船着場(불섬나루터)에 도착했다. 여기서 副面長님이 下船했다. 우리는 이 배로 夜間航海를 해서 木浦로 가기로 했다. 피로한 旅程이다.

船上에 자리를 깔고 西海의 落照를 玩賞하면서 勸함에 못이겨 梅實酒 一盃를 든다. 생낙지의 다리를 초장에 찍어 내 입에 마구 밀어 넣어주는 친구가 있다. 낙지 다리의 吸盤이 입언저리에 마구 달라붙는다.

보름을 바라보고 살아나고 있는 달과 北斗七星이 선명하다. 月明星稀인가, 달빛이 우리의 자리를 환희 비쳐준다. 船尾에는 흰 물결이 갈라지면서 멀리 뻗고 있

다. 이것을 사람들은 말해서 仙遊라고 한다. 누군가 말하기를 神仙이 따로 없다고 한다. 首肯이 간다. 서로 서로 술잔을 권하고 있다.

文益漸 선생님이 木花씨를 처음 뵈었다는 古花島를 가르킨다.

胎生을 한다는 흥어이야기에 꽃을 피웠다. 黑山島 흥어가 맛이 있다. 한 마리에 만원이 더 비싸다고 한다. 흥어는 암컷이 맛이 있다. 암컷은 보조꼬리가 더 짧아서 수컷과 구별이 된다. 시장에서는 수컷의 보조꼬리를 칼로 잘라서 팔고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은 암컷, 수컷 모르고 산다는 것이다. 多島海·多島海의 밤이다.

木浦의 금수장 여관에 든 것은 밤늦게였다.

■ <사진 : 필자>